

머리글

정민하 올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참 행복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역시 주님의 은총과 더불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화가 삶 안에 넉넉하게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는 여러 꿈과 희망이 함께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희망이 하느님 뜻 안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게 합니다. 물론 기쁘고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후회로 남거나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 -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여전히 남아 있는 빈곤과 기아 문제, 여기에 점점 심해지는 환경문제 등이 앞으로의 대한 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이를 더 심화시키는 건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등의 문제는 삶을 더 팍팍하게 합니다.

무릇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현재 이러한 여건 안에서 이 목표를 이루기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사회의 그릇된 행복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차지해야만 행복하다는 인식은 참 행복으로부터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누구보다 더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서려는 그릇된 판단으로 길을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로마 4,18) 그리스도인답게, 어렵고 혼란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이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특히 루카 복음의 행복 선언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 20)라는 말씀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가난'은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는 자세까지 아우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삶을 주관할 때, 비로소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의 길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하느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죄 말고는) 인간의 모든 것을 취하신 이 육화의 신비가 그러했고, 당신 백성의 속량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그러했음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더 내려놓으며 주님께 자리를 내어놓을 때 시작한다는 신앙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려놓음 안에서, 우리는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더 살필 수 있게 되고, 다른 이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노력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새해의 시작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2023년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11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2023년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각 교정시설 세례식



11월 24일(금)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에서 3명, 12월 5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에서 3명, 12월 11일(월) 서울동부구치소 여사에 1명, 12월 12일(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에서 3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봉사자와 수용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2월 4일(월)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부위원장 송정섭 시몬 신부의 주례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지난 10월 28일 축일을 맞이한 송정섭 시몬 신부와 12월 20일 축일을 맞이한 정민하 율리 오 신부의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아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송정섭 신부님과 정민하 신부님을 위해 영적 예물을 준비해주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역삼동성당 '카페에랑' 후원금 전달식



12월 7일(목) 역삼동성당 '카페에랑'에서 수익금을 모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보내 주신 귀중한 후원금은 범죄 피해자 가족과 수용자와 가족, 출소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김영옥 마리아 _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봉사자

침묵의 사전적인 의미는 ‘1.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2.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비밀을 지킴.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잠시 침묵 피정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누군가와 말을 안 한다는 것이 매우 즐겁고 설레고, 쉬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조용해야 할 때 옆 사람과 눈으로, 손으로, 쪽지로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중해야 할 때 집중 못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은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에 떠나온 집안일을 하는 저, 아주 멀리 있는 지인을 불러다 놓고 이일 저일을 들춰 가며 다투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저 가만히 성체에 있으면 행복한 것을 머릿속은 소란스럽습니다.

즐겁게 잠에서 깨어 아침을 맞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출근하는 아이들을 보고, 즐겁게 성당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등,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즐겁고 기쁘던 그 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나는 삶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가? 봉사란 그저 취미생활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저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을 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가 안이한 생각에 신앙생활도 잠재웠나 봅니다. 제한이 풀려 출입과 호흡이 자유로워졌지만, 아직도 코로나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열정은 채워지지 않고 ‘뭐하지? 뭐했지? 어! 이게 아닌데’하고 느꼈을 때 힘에 부치는 게 느껴지는데 자꾸 해야 할 일은 생겨납니다.

‘이거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밀려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해봐! 할 수 있어! 잘했잖아! 잘하잖아! 뒤에 든든한 뺑(하느님)이 있는데 걱정하지마’ 하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몸은 안 따라 주고 마음만 앞서가고 총명은 불투명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잡아 주신 손 꼭 잡고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해 하느님 손을 꼭 잡고 또 잡고 놓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용기를 주십시오.



사무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무엘에게서 교정사목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의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잘 알고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 이유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1사무 3,13)이었기에 또한 자기 아들들의 부족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민감했을 것입니다. 원로들이 임금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생긴 언짢은 감정에는 자기 아들들 역시 완벽하지 못하고 잘못(1사무 8,3)을 저지르며,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 자기 잘못, 또한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 자책감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느님께서 네 잘못이 아니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1사무 8,7)라고 위로하셨을까요.

교정사목자는 수용자 형제자매의 잘못을 보면서, 타인만의 잘못이라고 비난에 그치기보다는 사목자로서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성찰을 통한 책임감이 하느님께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느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하느님께 청하였고,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셨기에 그렇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1사무 1,20 참조). 사무엘 예언자는 역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드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1사무 8,3) 이 말에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단식하며, 죄를 뉘우칩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1사무 8,6) 사무엘은 이런 회개의 목소리와 구해달라는 부르짖음을 하느님께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필리스티아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사목자라면, 신자의 잘못과 실수, 죄에 대해 눈 감기보다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정사목자 역시 무엇이 진정한 악의 뿌리

이며 어떠한 경향인지를 정확히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느님께 전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의 목소리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왕인 하느님을 거슬러 임금을 요구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불경한 목소리마저도 하느님께 전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1사무 8,22). 사목자 자신이 하느님이 된 양, 모든 행위를 자기 뜻과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살피어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 하느님께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내며 대화를 나누었고, 하느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걱정하였고, 다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원한다고 하자, 사무엘은 이 역시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또 조곤조곤 자세히 설명해주는 하느님의 모습이 그려 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갈망을 잘 듣고 헤아렸기에 잘 전달했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도 우려하시는 하느님의 마음 역시 공감하였기에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목자는 하느님의 말씀과 마음을 잘 듣고, 헤아리며, 신자의 갈망을 이해하여 하느님께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정사목자는 수용자의 처지를 알고, 이해하며 함께 기도드려야 하고, 또 하느님 말씀을 사랑에 비추어,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격려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교정사목자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수용자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황에 주눅 들어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힘을 주어야 하며, 교정사목자 역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길을 가르쳐 주겠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1사무 12,20; 22-24).

마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김일호 미카엘_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자영업 폐업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폐업률은 1년 미만 21.2%, 1년 이상 3년 미만 39.5%, 3년 이상 5년 미만 28.1%로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88.8%에 달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영업은 창업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자영업 창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쟁이 심각하여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지원 강화 및 경영지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 폐업률을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어려운 창업환경에서 출소자가 창업하는 과정은 일반인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창업 이후에도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 불량자이거나 빈곤층이기에 사정이 절박한 출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천주교에서 지원하는 동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업 자금 심사에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업종분석, 상권분석, 입지 분석, 권리분석, 재무분석 등 검증작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고 도움을 끌어내셨으면 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는 출소자의 창업 성공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제도와 규정 등을 신부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개선하고 있고,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워크숍에 연구과제로 선정된 건에 대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고, 2024년에도 신부님들과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드립니다
이제 할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
1년동안 도타 주신 기도해 주신 영려하여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 습니다
사복 위원회 에 계시는 모든 분들 에게도 하느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죄 많은 사령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질서있게 계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할 드립니다
이제 신이 주님이 전대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주신 한없이
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는 위원회에 빠지라도 자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수고하여 너무나 감사하신 죄방이 없다면 정신
없이 하루 하루가 지나 가는것 같습니다
용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2년이 지나 갑니다
내년에도 위원회 에서 주일 위해 기도 할게 해 주신
왕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주님께서 주신 것들에게 죄방이 찬양을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에 계시는 모든 분들 에게도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 주교소에서 12월 11일 최영도

* 부산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로 생활하며 '바보의 나눔 지정 기탁'으로 매월 영치금을 지원받는 형제님이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4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행사 알림

- 1월 8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월 9일(화)~12일(금)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 1월 16일(화)~17일(수)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 / 배론성지
- 1월 23일(화)~25일(목)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제11차 정기총회 / 한국레지오마리아애기넌관
- 1월 24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3/11/16~12/15)

2023년 11월~12월에는 김성천, 김은숙 데레사, 박진옥 아녜스, 서정옥, 성영남 켈마, 이수연, 이안젤라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고순임 수산나, 김부연, 김순옥 소피아, 나난주, 맹복희 마리아막달레나, 손영옥, 오명수, 오화숙 마틸다, 이지용 프란체스코마나, 장혜정 첼리나, 역삼동성당(카페에랑)님께서 기부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